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5월 15일  
제1896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 33-35)



〈최후의 만찬〉, 앙드레 드랭, 시카고 미술관, 미국

## 부활 제5주일 (다해)

**제 1 독서** 사도 14,21ㄴ-27 |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다.

**화답송** 시편 145(144)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 2 독서** 묵시 21,1-5ㄴ |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음** 요한 13,31-33 7.34-35 |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방에서<sup>31</sup>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sup>32</sup>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sup>33</sup> 애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sup>34</sup>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sup>35</sup>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성화 해설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화가는 최후의 만찬 장면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제자들의 어두운 표정과  
달리 식탁의 흰색 보는 부활을  
상징하듯 밝게 빛나고 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아치 형태의  
문은 후광처럼 예수님의 몸을  
장식해 주며 생명의 푸른 빛을 띠고 있다.



〈최후의 만찬〉, 앙드레 드랭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신 후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들려 주셨다. 〈정웅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 복음 묵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삶에서 실천하도록 계명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교의 계명은 “사랑하여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목적어가 구약과 신약이  
조금씩 다르고, 또 신약에서도 공관 복음과 요한 복음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목적어가 “주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  
이스라엘’(이스라엘아, 들어라.)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 공관  
복음을 보면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전통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발견되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덧붙여 ‘사랑하여라!’는  
계명의 목적어를 이중으로, 곧 하느님과 이웃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롭고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여라.”  
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요한 복음 15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15.12.17).

따라서 적어도 요한 복음에서 ‘사랑하여라!’는 계명의  
목적어가 분명히 하느님에게서 사람에게 옮겨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은  
‘서로’라는 낱말에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첫째 편지가 들려주는 다음의 말씀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1요한 4.12).

〈박문수 막시미노 신부〉

## 자비의 어머니께 청하세요

- 프란치스코 교황

저는 성모님의 시선 아래에서  
 묵주 기도와 성체 조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와 일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나요!  
 애정, 격려, 동정, 사랑 그리고 반대로  
 위협, 질투, 자만, 증오에 이르기까지  
 시선은 여러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혹은 말로는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나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따뜻한 어머니처럼 상냥함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당신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우리가 **묵주기도의 신비** 속에서 기억하는  
 기쁘고, 빛나고, 고통스럽고, 영광스럽던 순간에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문제들로 지치고, 낙담하고, 짓눌릴 때면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애야 힘내거라! 너를 응원하는 내가  
 있잖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시선을 느껴 봅시다.  
 성모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어려움인지,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고 좌절인지 아시는 어머니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나약함과 죄책감을 느낄 때,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서 내 아들 예수께 가거라.  
 그분이 주시는 환대와 자비에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어머니께 청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

## “꾸준히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5월 8일 부활 제4주일 부활 삼중기도의  
 말미에서 전쟁의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언급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로 시선을 돌리며 이날 많은 신자들이 폼페이외의  
 성모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신자들이 폼페이외 성모성지에서 공경을 받는 성모  
 성화 주변에 모여 복자 바르톨로 롱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동정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무의미한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교황은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이 겪은 비극을 하느님의  
 어머니께 봉헌했다. “특별히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거룩하신 동정녀께 드립니다. 전쟁의 광기 앞에서 날마다  
 꾸준히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부탁드립니다.”

교황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잊지 말고 무기로는  
 절대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초대했다.

<출처 : <https://www.vaticannews.va/>>



**1 성모의 밤**

- 일시 : 5월 28일(토) 오후 7:30
- 성모님께 꽃과 편지를 봉헌하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11:40 (B-3,4)

**3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11:40 (A-1,2,3,4)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5 대학 진학 학부모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5월 15일(일) 오후 3시 (B-3,4)
- 내용 : 대학 진학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 대상 : 학부모
- 강사 : 구아름 데레사 학교 상담사

**6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접수 : 5월 15일(일)까지
- 준비서류 :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혼인 증서
- 견진식 : 6월 5일(일) 오후 2:30 (알링턴 교구 주교좌 성당)
- 문의 : 선교부 (703) 851-2364  
사무실 (703) 968-3010
- 견진 교리 : 5월 20일(금), 27일(금), 6월 3일(금)  
저녁 미사 후에 있습니다.

**7 CYO WorkCamp 기금을 위한 Car Wash**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장소 : 하상관 주차장
- 가격 : \$15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미사 봉헌 전에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세차해 드리겠습니다.

**8 루카회 월례회의(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5월 22일(일) 오전 11:40 (나눔터)

**9 요한회 월례회의(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5월 22일(일) 오전 11:30 (B-4)

**10 K o C 월례회의(새 임원 선출)**

- 일시 : 5월 22일(일) 오전 11:30 (A-1)
- 문의 : 한광모(마태오) (703) 899-8551

**11 바오로회 정기모임(3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5월 22일(일) 오후 2시 미사 후 (친교실)

**12 베드로회 첫 형제모임(40대 본당 남자 교우)**

-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8시 (친교실)

**13 꾸르실료 제349차 울드레아**

-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7:30 미사 후 (A-1,2,3)

**14 ME 주말 부부**

- 일시 : 5월 28일(토) 오후 7시 - 30일(월) 오후 5시까지
- 장소 : 헌팅톤 수도원(롱아일랜드, 뉴욕)
- 접수 : 친교실
- 문의 : 김영술(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35

**15 2022 CYO WorkCamp Contractor 봉사자 모집**

- 봉사 기간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4-0333  
사무실 (703) 968-3010

**16 혼인 갱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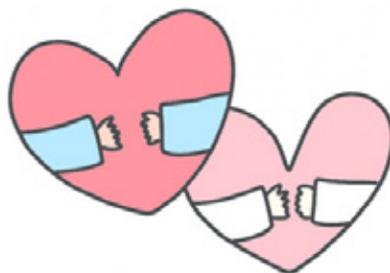
- 일시 : 6월 12일(일) 10시 미사 중
- 대상 : 25, 30, 40, 50, 60년
- 신청 마감 : 5월 29일(일)까지
- 문의 : 김영술(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35

**17 성령 기도회 모임**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미사 후 (도서실)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튼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서 13장 34절

비아글씨

〈바오로말 콘텐츠〉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5월 8일(부활 제4주일)

주일 헌금	\$ 6,751.00
교무금	\$ 10,020.00
교무금(신용카드)	\$ 2,290.00
2차 헌금	\$ 2,857.00
감사 헌금	\$ 760.00
온라인 봉헌	\$ 2,380.00
<b>합계</b>	<b>\$ 25,058.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5월 19일(목) 오후 5:00-6:00
- 5월 20일(금) 저녁 8:00-9:00
- 5월 22일(일) 오전 6:00-7:00

1. 성정바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속의 교회 - 현대성당 건축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1974 - 2024

Year One(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의 생활화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 ♥ 성당 주변(Rippling Pond Dr.) 이웃들의 정원에 쓰레기나 음료수 빈칸 등을 버리지 마세요.
- ♥ 새벽 미사 참석 시, 저속 운행(15마일)과 성당 방향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0 PM</li> </ul>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